

‘아무도’와 ‘아무나’의 의미 해석

명정희(서강대)·이정훈(서강대)

< 차례 >

1. 서론
2. ‘아무’의 의미와 양화적 특성
 - 2.1. 존재 양화사 ‘아무’
 - 2.2. ‘아무도’, ‘아무나’의 집단성과 배분성
3. ‘아무도’와 ‘아무나’의 의미
 - 3.1. ‘아무’와 ‘도’의 의미 합성
 - 3.2. ‘아무’와 ‘이나’의 의미 합성
4. 결론

1. 서론

현대국어의 ‘아무’는 일부 격조사와 특정 보조사와만 결합하여 분포의 제약을 보인다.¹⁾ 특히 ‘도’가 결합한 ‘아무-(NP)-도’는 아래 (1), (2)에서처럼 부정 표현이 실현된 맥락에서만 허용되어 한국어 부정극어(NPI, Negative Polarity Items) 논의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시정곤 1997, 남승호 1998, 최기용 1998 등).

- (1) 가. *철수는 아무도 만났다.
나. 철수는 아무도 {안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
다. *철수는 아무도 만났니?
라. 철수는 아무도 {안 만났니?, 만나지 않았니?}
- (2) 가. *영수는 아무 책도 읽었다.
나. 영수는 아무 책도 {안 읽었다, 읽지 않았다}.
다. *영수는 아무 책도 읽었니?
라. 영수는 아무 책도 {안 읽었니?, 읽지 않았니?}

‘아무’는 (1)처럼 불특정한 사람을 나타내거나 (2)처럼 다른 명사구를 수식하여 불특정성(unspecificity)을 드러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아무’에 ‘도’가 올 때 부정 표현이 요구된다. 부정

1) ‘아무’는 ‘행운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나 ‘철수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에서 보듯이 부사격조사 ‘에게’와 잘 결합하는 한편 ‘*철수는 **아무에서나** 공부하지 않는다’처럼 ‘에서’는 잘 결합하지 않는다. 이는 ‘아무’가 단독으로 쓰일 때 [사람]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용(1998: 329)에서는 ‘아무’ 앞에 ‘아무’의 보어로 pro를 설정하는데, 이 pro가 [인간]이라는 일정한 의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표현은 (1), (2)에서처럼 부정 부사나 ‘-지 않-’ 구성일 수도 있고, ‘아무도 없다, 아무도 답을 모른다’에서 보듯이 부정 서술어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아무’에 ‘이나’가 결합한 ‘아무-(NP)-이나’는 아래 (3)에서 보듯이 부정 표현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

- (3) 가. 철수는 아무나 {만났다, 안 만났다}
나. 철수는 아무나 {만났니?, 안 만났니?}
다. 영수는 아무 책이나 {읽었다, 안 읽었다}
라. 영수는 아무 책이나 {읽었니?, 안 읽었니?}

위의 (1)~(3)의 예들은 ‘아무’가 형성하는 명사구의 의미·통사적 특성이 ‘아무’와 결합하는 보조사 ‘도’, ‘나’의 의미·통사적 특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아무도’와 ‘아무나’는 공통적으로 ‘아무’를 포함하고 있지만, ‘아무도’는 부정극어(NPI, Negative Polarity Items)로, ‘아무나’는 자유 선택을 허가하는 표현(FCI, Free Choice Items)으로 분석된다.²⁾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아무도’와 ‘아무나’의 의미 차이를 ‘아무’와 보조사 ‘도’, ‘이나’의 의미가 합성되는 과정을 통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보조사 ‘도’와 ‘이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함께 분석한다.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양화사 이론을 바탕으로 ‘아무’의 양화사적 의미 특질을 규명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보조사 ‘도’와 ‘이나’의 의미 특성을 밝혀 ‘아무도’, ‘아무나’의 의미가 해석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한다.

2. ‘아무’의 의미와 양화적 특성

‘아무’는 아래 예에서 보듯이 다른 조사와 결합하여 보편 양화 해석을 산출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고, 존재 양화 해석을 산출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 (4) 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기용 1979: 72)
≡ (사람들이) 모두 오지 않았다.
나. {아무 꽃이라도, 아무 꽃이나} 따야만 한다. (윤영은 2000: 459)
≡ (맥락: 파티 장소를 꾸미기 위해 최대한 많은 꽃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꽃이든 모두 따야만 한다.
≡ (맥락: 여러 꽃들 중에서 예쁜 꽃 한 송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꽃이든 최소한 하나는 따야만 한다.

(4가)에서처럼 ‘아무’가 ‘도’와 결합하여 부정 문맥에서 실현되면 ‘모두 오지 않았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 ‘아무도’가 보편 양화사 ‘모두’처럼 해석된다. 한편 (4나)의 ‘아무’가 결합한 명사구에는

2) ‘자유 선택’이란 ‘아무나’에 의해 지시될 수 있는 대상이 맥락 내 상정되는 개체들의 집합 안에서 어떤 것인지, 몇 개인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3다) ‘철수가 아무 책이나 읽었다’에서, 철수가 읽을 수 있는 책이 {A, B, C}라면 이 세 권 중 한 권 또는 여러 권이 무작위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기본적으로 자유선택어(FCI)는 이접(disjunction)과 관련되어 있다고 연구되어 왔다(FCI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Choi(2007), Kim and Kaufmann(2007), 허세문(2021) 등 참고). 한편 ‘철수가 아무 책이나 읽지 않았다’라는 말은 철수가 특정한 책을 선택했다는 것을 뜻한다. 부정문에 쓰인 ‘아무-(NP)-나’의 의미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이라도’와 ‘-이나’가 결합하였는데 두 경우 모두 보편 양화적 해석과 존재 양화적 해석이 가능하다.³⁾

(4가), (4나)의 예를 통해 부정극어(NPI)인 ‘아무-(NP)-도’는 보편 양화 해석을 가지는 반면 부정극어가 아닌 ‘아무-(NP)-이나’, ‘아무-(NP)-이라도’는 보편 양화 해석 또는 존재 양화 해석을 가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여전히 ‘아무’가 결합한 표현들의 의미 해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바가 적다. 이에 아래에서는 ‘아무도’와 ‘아무나’에 초점을 맞추어 이 둘의 의미적, 구조적 차이를 ‘아무’의 의미, 보조사 ‘도’, ‘이나’의 의미를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1. 존재 양화사 ‘아무’

1) ‘아무’와 ‘모두’의 차이

위의 (4)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무’는 뒤에 어떤 조사가 결합하든 공통적으로 보편 양화적 해석을 가진다. 그렇다면 ‘아무’는 보편 양화사인가? ‘아무’가 보편 양화사라면 한국어의 또 다른 보편 양화사인 ‘모두’와 같은 양화적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아래 (5)~(8)의 예를 보면 ‘아무’와 ‘모두’의 의미가 같지 않다.

- (5) (졸업식에) 모두가 {오지 않았다, 안 왔다}
- 가. ≡ [전체 부정] 졸업식에 온 사람이 0명이다.
나. ≡ [부분 부정] 졸업식에 몇몇의 사람만 왔다.
- (6) 모두가 {오지 않았다, 안 왔다}
- 가. $\forall x[\text{사람}(x) \rightarrow \neg \text{오다}(x)]$ (every > not)
= $\forall x[\neg \text{사람}(x) \vee \neg \text{오다}(x)]$
= $\neg \exists x[\text{사람}(x) \wedge \text{오다}(x)]$
나. $\neg \forall x[\text{사람}(x) \rightarrow \text{오다}(x)]$ (not > every)
= $\exists x \neg [\text{사람}(x) \wedge \text{오다}(x)]$

먼저 부정문에 ‘모두’가 결합한 (5)는 (5가)의 전체 부정으로 해석되거나 (5나)의 부분 부정으로 해석된다.⁴⁾ (5가), (5나)에서 해석되는 부정과 양화사의 영향권(scope) 관계를 논리식으로 나타내면 (6가), (6나)와 같다.

3) 이기용(1979: 72)에서는 (4가)의 ‘아무도 오지 않았다’를 전칭명제로 해석하였고 윤영은(2000: 459~460)에서는 (4나)의 ‘아무’ 표현에서 존재 양화와 전칭 양화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았다.

4) 전칭 양화사와 부정문 사이의 영향권(scope)과 관련된 중의성에 대해서는 화자마다 내성적 직관(introspective intuition)이 다를 수 있다. 이를 주제로 한 기존 논의에서도 주장이 나뉘는데, Song(1982), Baek(1998) Kim(2000) 등은 (6)과 같은 문장에서 전체 부정 및 부분 부정이 모두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에 Cho(1975), Suh(1989, 1990)는 부정문의 종류(단형, 장형)나 양화사의 논항 위치(주어, 목적어)에 따라 중의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에 이선영(2017)에서는 실험과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부정문과 전칭 양화사가 포함된 문장의 중의성 해석에 대한 선호도 관계를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참여자들은 부정문의 종류나 양화사의 위치에 상관없이 전체부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었는데 부분부정 해석 역시 평균 30% 정도가 나왔다(예: 장형 부정, 전칭 양화사 목적어 위치의 경우 [전체부정] 해석 65.5%, [부분부정] 해석 34.4%). 필자의 직관에도 (6)은 (6가)의 해석이 우세하나, (6나)의 부분부정 해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러한 직관으로 ‘아무’와 ‘모두’의 해석 차이를 언급한 논의로 이영현(1983: 78)도 참고할 수 있다.

(6가)는 ‘[모든 x[x가 사람이면 오지 않음]’으로 해석되어 한 명도 오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존재 양화사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는데, ‘ $\neg \exists x[\text{사람}(x) \wedge \text{오다}(x)]$ ’는 ‘[[x가 사람이면서 오]그런 x는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석된다.⁵⁾ 즉, 존재 양화사로 표기하면 부정(\neg)의 영향권이 존재 양화사보다 더 넓은 영향권을 갖게 된다. 한편 (5나)의 부분 부정 해석은 (6나)처럼 나타낼 수 있어 부정의 영향권이 보편 양화사보다 더 넓은 영향권을 가져 ‘모두가 오지는 않았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중의성을 지니는 ‘모두’와 달리 ‘아무도’는 아래 (7), (8)에서 보듯 전체 부정의 의미로만 해석된다.⁶⁾

(7) (졸업식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안 왔다}

가. \equiv [전체 부정] 졸업식에 온 사람이 0명이다.

나. \neq [부분 부정] 졸업식에 몇몇의 사람만 왔다.

(8)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안 왔다}

가. $\forall x[\text{사람}(x) \rightarrow \neg \text{오다}(x)]$ (every > not)

$= \forall x[\neg \text{사람}(x) \vee \neg \text{오다}(x)]$

$= \neg \exists x[\text{사람}(x) \wedge \text{오다}(x)]$

나. $*\neg \forall x[\text{사람}(x) \rightarrow \text{오다}(x)]$ (not > every)

$= * \exists x \neg [\text{사람}(x) \wedge \text{오다}(x)]$

‘아무도’가 결합한 부정문은 (8가)에서처럼 부정의 영향권(scope)이 보편 양화사보다 좁은 것으로만 해석되고 보편 양화사보다 더 넓은 영향권을 가지는 (8나)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모두’와 ‘아무도’의 차이는 아래 (9), (10)처럼 ‘아무-NP-도’와 ‘모든 NP’가 목적어 자리에 올 때에도 확인된다.⁷⁾

(9) 철수가 아무 책도 읽지 않았다. (Chelswu didn't read any books)

가. $\forall x[\text{책}(x) \rightarrow \neg \text{철수.읽다}(x)]$

$= \neg \exists x[\text{책}(x) \wedge \text{철수.읽다}(x)]$

나. $*\neg \forall x[\text{책}(x) \rightarrow \text{철수.읽다}(x)]$

$= * \exists x \neg [\text{책}(x) \wedge \text{철수.읽다}(x)]$

(10) 철수가 모든 책을 읽지 않았다. (Chelswu didn't read every books)

가. $\forall x[\text{책}(x) \rightarrow \neg \text{철수.읽다}(x)]$

$= \neg \exists x[\text{책}(x) \wedge \text{철수.읽다}(x)]$

나. $\neg \forall x[\text{책}(x) \rightarrow \text{철수.읽다}(x)]$

5) 이처럼 부정 명제에 대한 보편 양화 문장이 존재 양화 문장에 대한 부정과 동의문이라는 것은 양화사 부정 규칙(quantifier negation rule)으로 정리되어 있다.

6) (6)의 ‘모두가’를 ‘모든 사람’으로 바꾸고 (7)의 ‘아무도’를 ‘아무 사람’으로 바꾸어 ‘아무’가 명사구를 수식하는 구성으로 바뀌어도 중의성 해석 여부의 차이는 동일하다. ‘아무 사람’은 전체 부정으로만 해석되고 ‘모든 사람’은 전체 부정 또는 부분 부정이 모두 해석될 수 있다.

7) Musolino & Lidz(2006)에서는 영어원어인 화자의 경우 ‘John didn't read every book’ 문장을 부분부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이선영(2017)에서 제시한 한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10)의 문장을 (10가)처럼 전체부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선영(2017)에서는 이러한 이유가 한국어의 경우 ‘존이 모든 책을 읽은 것은 아니다’와 같이 중의성을 해소하는 부분부정의 표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도 영어의 ‘any’와 마찬가지로 (9)처럼 ‘철수가 아무 책도 읽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체부정의 의미로 해석되어 중의성이 해소된다. 따라서 한국어에 부분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10)에 대한 영어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직관 차이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게 보인다.

$$= \exists x \neg [\text{책}(x) \wedge \text{철수.읽다}(x)]$$

(5)~(10)에서 확인한 것처럼 ‘아무’는 ‘모두’나 ‘모든’과 달리 항상 부정의 영향권이 보편 양화사 보다는 좁고, 존재 양화사보다는 넓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모두, 모든’과 동일한 보편양화사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위에서 살핀 ‘아무’는 보조사 ‘도’와 결합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데 반하여 ‘모두’는 아래 (11)에서 보듯 ‘도’와 결합할 수 없다.

(11) 가. ***모두도** 오지 않았다.

나. *철수가 **모든 책도** 읽지 않았다.

(11가), (11나)에서 보듯 첨가의 의미를 더하는 ‘도’는 애초에 보편 양화사와 함께 나타날 수 없다. 전부에 해당하는 것에 뭔가를 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아무’가 보편 양화사가 아님을 보여준다.⁸⁾

2) 대안: 존재 양화사로서의 ‘아무’

‘아무도’가 결합한 문장은 아래 (12), (13)에서처럼 존재양화 명사구인 ‘한-NP-도’, ‘어떤-NP-도’가 포함된 문장과 동일한 양화사 영향권 관계를 가진다.

(12)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가. $\neg \exists x [\text{사람}(x) \wedge \text{오다}(x)]$

나. * $\exists x \neg [\text{사람}(x) \wedge \text{오다}(x)]$

(13) 철수가 **어떤 책도** 읽지 않았다.

가. $\neg \exists x [\text{책}(x) \wedge \text{철수.읽다}(x)]$

나. * $\exists x \neg [\text{책}(x) \wedge \text{철수.읽다}(x)]$

(12)의 ‘한 사람도’는 (7)의 ‘아무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부정의 해석으로만 연결되며 (12나)의 식이 나타내는 부분 부정 해석은 가지지 않는다. (13)의 ‘어떤 책도’ (9)의 ‘아무 책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부정으로만 해석된다.⁹⁾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아무도’의 ‘아무’는 (12), (13)의 ‘한’이나 ‘어떤’과 같은 존재 양화사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를 존재 양화사로 해석하면 아래 예에서처럼 보조사 ‘이나’가 결합하여 존재 양화사로만 해석되는 현상도 ‘아무’의 양화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4) 가. (마트에서 아이가 과자를 고르는 상황에서 엄마가 말한다.)

지은아. 시간 없어. **아무 거나** {하나만, 두 개만, 세 개만, ...} 골라.

나. (하루종일 굶은 영수가 친구 집에 놀러와 말한다.)

아무 음식이라도 좋으니 먹을 것 좀 줘.

8) ‘아무나, 아무라도’는 가능한데 ‘*모두나, *모두라도’가 불가능한 것도 ‘아무’와 ‘모두’의 차이를 보여준다. ‘아무’와 조사의 결합 특징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9) ‘한 사람도’는 ‘아무도’와 달리 척도 함축이 해석되는데 척도 함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또한 ‘어떤 책도’의 ‘어떤’은 ‘아무도’의 ‘아무’와 달리 격조사 결합에 제약이 없어 ‘어떤 책을 읽었다, 어떤 책이 좋니?’ 등의 문장 실현이 가능하다.

(14가)에서 ‘아무 거나’는 후행하는 ‘하나만, 두 개만, 세 개만, ...’이라는 명사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개 이상의 존재를 뜻하는 존재 양화사적 해석에 가깝고, (14나)의 ‘아무 음식이라도’도 맥락상 존재 양화사적 해석에 가깝다. ‘아무’가 보편 양화사라면 후행하는 명사구를 하나만 선택하는 문맥에서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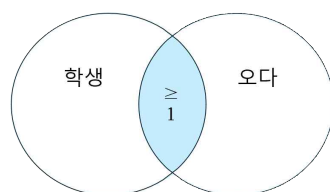
더불어 ‘아무’는 기존 논의에서 언급되어 온 것처럼 현대국어 이전 시기에는 분포 및 의미의 폭이 넓었는데, 아래 (15)에서 보듯 불특정한 개체 누군가를 가리킬 때에도 사용되었다.

- (15) 가. 늪이 니로되 내 동심이 동궁 침실의 이시니 너관이 보아도 아모의 동심이라 하고
 핀잔 될 것이니 아뢰 보아도 고이하고 뵈노라 하더라 <계축하16a, 16--년>
 나. 또 원혼건대 영창대군 니의와 목스 김 아모 진스 김규 유희 김션 현녕 심명세 현녕
 김효남 <서궁일기75a, 16--년>
 다. 기운이 업서 횡동 거지를 림의로 못하고 아모가 와서 욕을 하고 썩리고 가졌든 물
 건을 썩서가도 <독립신문, 1896>
 라. 한번 만져만 보아도 산 사람의 병이 된다오 인저는 아모가 알튼지 죽든지 나는 도
 모지 상관치 말니다 <구마점3> (이금희 2013: 72~76의 예)

(15가)~(15라)의 예를 보면 20세기 초 자료까지도 ‘아모(>아무)’ 뒤에는 격조사 ‘가’, ‘의’가 결합되었다. 이때 ‘아모’는 화자가 아는 특정한 어떤 대상을 지시하기도 하고 화자가 잘 모르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15다)처럼 화자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인 ‘아모’는 현대국어의 ‘누군가가’로 환언될 만하다.

위에서 살핀 예들을 종합하면 ‘아무도’, ‘아무나’에 쓰인 ‘아무’는 존재양화사로 분석할 수 있다. ‘아무’의 의미를 존재 양화사로 분석하기 위해 존재 양화사(3)의 의미를 일반 양화 이론에 따라 정의하면 아래 (16)과 같다.¹⁰⁾

- (16) 집합 $A, B \subseteq U$ 에 대하여,
 $SOME(A, B) = 1$ iff $A \cap B \neq \emptyset$
 (17) 학생 집합(A) = {영희, 영수, 미나}
 온 사람들 집합(B) = {영희}
 가. 어떤 학생이 왔다.¹¹⁾
 나. 누군가가 왔다.



(17)처럼 학생 집합에 ‘영희, 영수, 미나’만 있다고 가정하고 그중 온 사람이 ‘영희’라고 해보자. 그리고 화자가 강의실에 학생이 들어온 것을 보았지만 그 학생이 ‘영희’인 것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영희가 왔다’는 것을 (17가), (17나)처럼 표현할 수 있다. (17가), (17나)는 (강의실에) 온 사람들 중에 학생 집합에 속하는 개체가 한 명 이상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즉 존재

10) 일반 양화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영철 2013, 강범모 2014 등을 참고.

11) ‘어떤 학생, 누군가’는 실제로는 대개 1명으로 해석된다. 이는 척도 함축에 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 1 ’이지만 ‘1’이 아니라 ‘2, 3, 4’ 등을 나타낼 때는 ‘2, 3, 4’에 해당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여러 명이 왔을 때 ‘한 명이 왔다’고 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양화는 어떤 집합을 만족하는 개체가 적어도 한 개 이상(at least one)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아무+NP’의 양화 의미를 존재 양화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18) 가. 아무 학생 왔다.

나. $\text{아무}(A, B) = 1 \text{ iff } A \cap B \neq \emptyset$

다. $\exists x[\text{학생}(x) \wedge \text{오다}(x)]$

이렇게 ‘아무’를 존재양화사로 분석하면 ‘아무+NP’ 명사구가 나타내는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므로, 그 집합의 원소가 최소한 하나 이상 존재할 경우 참이 된다. 만약 (18가)와 같은 문장이 성립한다고 하면, 온 학생의 수가 한 명일 때도 성립하고 두 명 이상일 때에도 성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아무’가 사용되는 ‘아무-(NP)-{도, 나}’의 언어 형식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무’가 가진 존재양화적 의미 특성 외에 집단성 및 배분성의 의미를 논하고 ‘도’, ‘나’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차례대로 서술한다.

2.2. ‘아무도, 아무나’의 집단성(collectivity)과 배분성(distributivity)

2.1절에서 논의한 대로 ‘아무’는 존재 양화사로 분석될 수 있는데, ‘아무’가 결합한 ‘아무-(NP)-도’, ‘아무-(NP)-나’의 양화 의미는 존재 양화의 개념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¹²⁾ 이에 ‘아무도’, ‘아무나’의 의미 합성 과정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아무도’, ‘아무나’가 가지는 양화적 특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아무도’는 한국어의 보편 양화사 ‘모두, 전부’와 마찬가지로 집단성(collectivity)과 배분성(distributivity)의 의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모두, 전부’는 아래 (19), (20)에서 보듯 문장에 결합하는 술어가 배분적 술어(웃다, 가다 등)인지 집단적 술어(모이다, 둘러싸다 등)인지에 따라 배분성과 집단성의 의미를 나타낸다.¹³⁾

(19) 가. 학생들 {모두가, 전부가} 간다.

나. $U = \{\text{철수, 영수, 영희}\}$

철수가 간다 \wedge (and) 영수가 간다 \wedge (and) 영희가 간다

(20) 가. 학생들 {모두가, 전부가} 나를 둘러쌌다.

12) ‘아무’의 의미 자질을 다룬 기존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아무’의 의미는 [-특정성]이다. 김미형(1994), 시정곤(1997)에서는 각각 ‘아무’가 ‘한정되지 않은 개체의 무리’, ‘전체 집합의 불특정 원소’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금희(2013)에서는 ‘아무’가 현대국어 이전에는 [+특정성] 대상을 가리키다가 [-특정성] 대상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의미 영역이 축소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종남(2011), (2015)에서는 ‘아무’의 의미를 [-고정적]이라는 술어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어떤 대상을 한정하여 지시할 수 없는 특징을 뜻한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기존 논의와 마찬가지로 ‘아무’가 특정한 개체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아무’가 ‘도’나 ‘나’ 같은 보조사와 결합하여 실제 쓰이는 양상을 확인해 보면, 결합하는 조사나 ‘아무+NP+{도, 나}’가 쓰이는 맥락에 따라 ‘아무’ 명사구가 나타내는 수의 의미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아무’가 나타내는 수의 의미 특성인 집단성 및 배분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13) 김영희(1984)에서는 ‘개체’ 의미를 고유 자질로 하는 셈술말들은 개체 셈술말(individual quantifiers)이라고 하고 ‘집합’ 의미를 지닌 셈술말들은 집합 셈술말(collective quantifiers)라고 하였다. 김영희(1984: 31)에서는 동시성의 시간 부사어와 공존하는가에 따라 개체 셈술말과 집합 셈술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래 (가)는 개체 셈술말의 예로, (나)는 집합 셈술말의 예로 제시되었다.

가. *매 학교가 이맘때면 {한꺼번에, 일시에} 축제를 벌인다. (김영희 1984: 31)

나. 모든 학교가 이맘때면 {한꺼번에, 일시에} 축제를 벌인다. (김영희 1984: 31)

나. $U = \{\text{철수, 영수, 순이}\}$

철수와 영수와 순이가 (함께) 나를 둘러쌌다.

‘모두, 전부’는 (19)에서처럼 집단 내 복수 개체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20)에서처럼 개체의 합이 공동으로 하나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¹⁴⁾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도’도 아래 (21), (22)에서 보듯이 배분성과 집단성의 의미 특성을 가진다.

(21) 가. 학생들이 **아무도** 가지 않았다.

나. $U = \{\text{영희, 철수, 순이}\}$

영희가 가지 않았다 \wedge (and) 철수가 가지 않았다 \wedge (and) 순이가 가지 않았다

(22) 가. 학생들이 **아무도** 모이지 않았다.

나. $U = \{\text{영희, 철수, 순이}\}$

영희와 철수와 순이가 (다) 모이지 않았다.

(21가)의 화자가 ‘학생들’ 집합을 구성하는 개체들을 알고 있는 맥락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에는 (21나)처럼 ‘아무도’가 배분적 해석을 가진 보편양화로 해석된다.¹⁵⁾ 반면에 (22가)에서 ‘아무도’는 ‘모이다’라는 술어의 의미를 만족하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해석되어 집단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아무나’가 쓰인 예문을 살펴보면 ‘아무나’는 ‘아무도’와 달리 존재 양화의 해석도 허가된다. 이는 다음 예문처럼 ‘아무나’가 단수의 개체를 지시할 때도 쓰이며, 이접(disjunction)의 의미를 나타내 개별성의 의미 특징을 보이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동아리 후배 3명 {영희, 철수, 순이}에게 해외 공연 출장에 대해 말한다.)

아무나 갈 수 있어.

(24) $U = \{\text{영희, 철수, 순이}\}$

영희가 갈 수 있다 \vee (or) 철수가 갈 수 있다 \vee (or) 순이가 갈 수 있다

(23)의 예문은 (24)처럼 해석되어 세 후배 중 한 명이 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한편 세 명 중 누가 선택되든 모든 가능성(영희가 가는 가능세계, 철수가 가는 가능세계, 순이가 가는 가능세계)이 허용된다는 의미까지 해석된다.

‘아무나’는 (23)처럼 ‘아무나’ 단독으로 쓰이면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 개체 하나 하나를 가리키지만, 아래 (25)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후행하면 ‘아무나’가 나타내는 개체들의 수가 복수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아래 (25)의 발화 맥락은 (23)과 같다.

(25) **아무나** {한 명, 두 명, 다} 갈 수 있어.

(25)에서 ‘아무나’ 뒤에 ‘한 명’이 오면 (23)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지만 ‘두 명’이 올 경우 ‘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두 명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다’와 같이 보편 양화의 부사도 올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갈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철수, 영희, 순이}가 다 포함되는 해석도 고려된다.¹⁶⁾

14) 집단성, 배분성의 의미 특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영희(1984), 강범모(2014), 전영철(2015), 정상희(2021), Landman(1989), Schwarzschild(199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5) Joh(2010)에서는 영어의 보편 양화사 ‘all, every each’의 차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로 다른 의미식을 제시하였다. 영어의 보편 양화사가 가진 의미 특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oh(2010)을 참고할 수 있다.

16) 이러한 현상을 보건대, ‘아무나’는 후행하는 수량 표현(부동 양화사)에 의해 복수(두 명 이상)가 지시되므로 수량 표현이 오지 않는 경우(=‘아무나’ 단독 사용의 경우), ‘한 개’의 단수 해석이 나오는 것은 척도 함축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나’에 대한 3.2 논의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25)에서 ‘아무나’ 뒤에 수량 표현이 추가되어도 여전히 배분성이 해석되는데 이는 수량 표현 뒤에 배분성 표지 ‘씩’이 결합하는 아래 (26)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¹⁷⁾

(26) 오고 싶은 사람 **아무나** 두 명씩 오세요.

한편 ‘아무나’는 ‘아무도’와 달리 아래 (27)에서 보듯이 집단성을 나타내는 술어와는 잘 쓰이지 않는다.

(27) 가. *군인들은 **아무나** 성을 포위해라

나. *학생들은 **아무나** 서로를 존중해라.

(28) 가. 군인들이 **아무도** 성을 포위하지 않았다.

나. 학생들이 **아무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

(27), (28)에 쓰인 술어 ‘포위하다’, ‘(서로를) 존중하다’는 한 개체가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집단적 특성을 지닌다. (28)처럼 ‘아무도’가 올 때는 이러한 술어 결합에 제약이 없는데 ‘아무나’는 (27)에서 보듯 집단 술어와 잘 결합할 수 없다.¹⁸⁾

정리하면 ‘아무나’는 ‘아무나’ 뒤에 수량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양화사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개체 해석만 가능하고 ‘아무나’ 단독형이 집단 술어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을 보건대 배분성 해석만 지닌다. 반면에 ‘아무도’는 보편 양화와 같이 해석되어 결합하는 술어에 따라 집단성과 배분성의 의미 특징을 모두 가진다.

(29) $U = \{\text{철수, 영화, 미나}\}$

가. 아무 $\Rightarrow \{\text{철수, 영화, 미나}, \{\text{철수, 영화}\}, \{\text{영화, 미나}\}, \{\text{철수, 미나}\}, \{\text{철수, 영화, 미나}\}\}$

나. 아무도(\forall) $\Rightarrow \{\text{철수, 영화, 미나}\}$

[집단성] 또는 [배분성]

다. 아무나(\exists) $\Rightarrow \{\text{철수 or 영화 or 미나}\}$

$\{\{\text{철수, 영화}\} \text{ or } \{\text{영화, 미나}\} \text{ or } \{\text{철수, 미나}\}\}$

$\{\text{철수, 영화, 미나}\}$

[배분성]

17) ‘씩’과 관련된 배분성의 특징은 최재웅(1991), 강범모(201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8) 기존 논의에 따르면 ‘이나’는 평서문보다는 특정 양상 맥락에서 주로 쓰인다(목정수 2003, 허세문 2021 등). 이에 따라 (27)의 ‘아무나’ 예문은 명령문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아무나’가 쓰인 문장이라고 해서 늘 집단 술어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학생들은 아무나 {모였다, 모였다}’와 같은 예문은 자연스럽다. 집단 술어별로 ‘아무나’와 결합할 때 수용성의 정도는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아무도’와 ‘아무나’의 의미

3.1. ‘아무’와 ‘도’의 의미 합성

1) ‘도’의 의미론적 의미

‘아무’는 존재 양화사로 분석되는데, ‘아무’가 보조사 ‘도’와 결합하면 보편 양화사와 같이 해석된다. 이는 ‘아무’의 의미와 ‘도’의 의미가 합성되면서 생긴 결과이므로 ‘도’의 의미를 분석하면 ‘아무도’의 의미가 해석되는 과정을 밝힐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보조사 ‘도’는 선행항 외에 자매항의 존재를 함의한다(양인석 1973, 성광수 1978, 홍사만 1983 등).¹⁹⁾

(30) **철수도** 여행을 간다.

가. 단언(assertion): 철수가 여행을 간다.

나. 전제(presupposition): ‘철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여행을 간다. [첨가(additivity)]

(30)은 (30가)의 의미를 단언하면서 동시에 (30나)와 같이 첨가(additivity) 의미를 전제한다.²⁰⁾ ‘도’가 지닌 [첨가]의 의미를 집합으로 표시하고 ‘도’가 포함된 문장의 논리식을 나타내면 아래 (31)과 같다.

(31) **철수도** 여행을 간다.

가. 대체 집합($ALT(x)$) = {철수, 민수, 영수}

나. 전제: 철수 외에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다.

$\exists y[y \in ALT(x) \wedge \text{여행을 간다}(y) \wedge y \neq \text{철수}]$

다. $\exists x[\text{여행을 간다}(x) \wedge x = \text{철수}] \wedge \exists y[y \in ALT(x) \wedge \text{여행을 간다}(y) \wedge y \neq \text{철수}]$

2) ‘도’의 함축적 의미

‘도’가 나타내는 ‘첨가’의 의미는 척도(scale)가 형성되는 맥락에서 척도 함축(scalar implicature)을 유발한다.²¹⁾ 위의 (31)에서 봤던 예문을 다시 가져오면 아래 (32)와 같다. 철수는 평소에 여행을 잘 안 가는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해보자. 그러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발화할 경우 ‘철수’와 ‘철수’ 외의 자매항들 사이에는 여행을 자주 가는 정도와 관련하여 척도(scale)가 형성된다.

19) 양인석(1973)에서는 ‘도’의 의미를 ‘자매항의 존재(sister member)’로 설명하였고, 성광수(1978)에서는 ‘동등한 타요소의 존재’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20) (30)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30나)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므로 (30나)는 (30)의 전제 의미에 해당한다.

21) 가능성 척도에서 극단값을 나타내는 것은 기존 논의에서 ‘극치 표현(양인석 1973)’, ‘극단 예시, 극단 부정, 양보(성광수 1978)’, ‘개연성 척도상 하한값(lower bound) 정대호 외(2002)’라는 다양한 용어로 기술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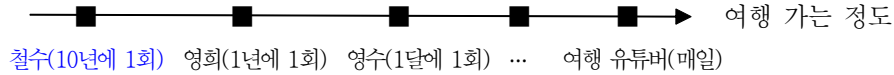
(32) A: 요즘 정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아.

B: 맞아. 평소 여행을 잘 안 가는 철수도 여행을 갔어. 모두가 여행을 간다는 뜻이지.

(33) 가. 단언(assertion): 철수가 여행을 갔다.

나. 함축(implication): 철수는 여행 가는 정도의 척도상 **하위값**을 차지함

철수 외의 사람들은 (당연히) 여행을 감



(32)의 대화에서 ‘철수도 여행을 갔어’는 (33)처럼 ‘여행을 (자주) 가는 정도’와 관련된 척도 안에서 해석된다. ‘도’가 결합함으로써 ‘철수’ 외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집합에 ‘영희’, ‘영수’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철수’는 여행을 가는 사람들 중 가장 여행을 적게 가는 사람에 속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다시 말하여 ‘철수’가 척도상 가장 하위의 극단값이라는 것이 함축되는 셈인데, 이로 인해 철수보다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행을 간다는 의미가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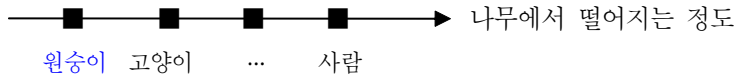
이러한 척도 함축은 아래 (34)~(35)처럼 관용 표현에 가까운 문장들에서도 해석되고 (36)~(37)과 같은 수량 명사구가 포함된 문장에서도 해석된다.

(34)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가. 단언(assertion):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나. 함축(implication):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정도의 척도상 하위값을 차지함

원숭이 외의 개체들은 (당연히) 나무에서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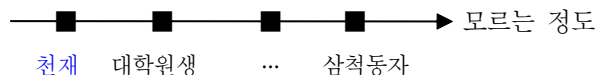


(35) 그런 건 천재도 모른다.

가. 단언(assertion): 천재가 모른다.

나. 함축(implication): 천재는 무언가를 모르는 정도의 척도상 하위값을 차지함

천재 외의 개체들은 (당연히) 모름



(34)에서 ‘도’의 선행항인 ‘원숭이’는 관습적으로 나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낮은 개체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성립하면 원숭이 외의 다른 개체들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35)의 ‘천재’도 무언가를 모를 가능성이 아주 낮은 개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천재가 모른다면, 천재 외의 자매항에 속한 원소들은 모두 모른다는 의미가 함축된다.

이렇게 가능성의 척도에서 하위의 극단값과 어울리는 ‘도’는 ‘한 사람’, ‘다섯 사람’ 같은 수량사구 뒤에 결합할 때에도 척도 함축을 불러일으키는데, 특이한 것은 부정 문장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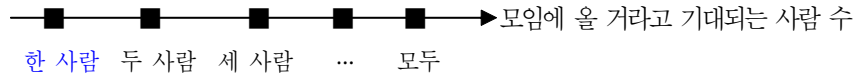
(36) (모임에) 한 사람도 안 왔다.

가. 단언(assertion): 한 사람이 안 왔다.²²⁾

나. 함축(implication): ‘한 사람’은 모임에 올 거라고 기대되는 사람의 숫자 중 하위값임

‘한 사람’ 이상의 수는 (당연히) 부정됨

22) (36), (37)에서 수량 명사구 ‘한 사람’, ‘다섯 명’은 모두 비한정 명사구로 해석된다. 수량 명사구가 특정성을 가진 한정 명사구라면 긍정문에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한 사람도 왔고, 모르는 사람들도 왔어’와 같은 문장에서 특정성을 가지는 ‘한 사람도’는 긍정문에 실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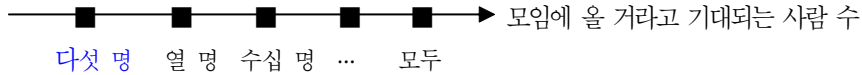


(37) A: 어제 모임엔 많이들 왔나요?

B: 많이는커녕 **다섯 명도** 안 왔어요.

가. 단언(assertion): 다섯 명이 안 왔다.

나. 함축(implication): ‘다섯 명’은 모임에 올 거라고 기대되는 사람의 숫자 중 하위값임
‘다섯 명’ 이상의 수는 (당연히) 부정됨



(36)에서 ‘한 사람’은 (36나)의 그림에서 보듯이 척도상 가장 낮은 하한값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기대하는 참여자의 최솟값은 한 명이다. 그런데 이것이 ‘안 왔다’에 의해 부정되므로 그 이상의 수는 당연히 부정된다. (37)도 맥락상 (37B)의 화자가 상정하는 최소한의 참여자 수는 다섯 명일 수 있다. 그런데 참여한 사람이 다섯 명 미만일 경우 우리는 (37B)와 같이 말한다. 예를 들어 ‘최소한 다섯 명은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다섯 명도 안 왔네요’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36), (37)에 쓰인 ‘비한정 수량 명사구+도’는 척도 함축의 기제를 바탕으로 각각 ‘모두 오지 않았다’, ‘네 명만 왔다’로 해석된다.

3) ‘아무-(NP)-도’의 의미

이제 (30)~(37)에서 살핀 ‘도’의 의미를 바탕으로 ‘아무도’의 의미를 살펴보자. ‘아무도’는 ‘특정 명사구+도’가 쓰인 문장과 달리 부정극어(NPI)로 사용되는데 이는 ‘아무’와 ‘도’의 의미가 합성되며 생기는 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정 명사구+도’는 아래 (38가), (38나)에서처럼 긍정문과 부정문에 모두 실현되는데 이때 ‘도’는 첨가의 의미를 나타낸다.

(38) U = {철수, 영희, 준이}

가. **철수도** 왔다.

나. **철수도** 안 왔다.²³⁾

ALT(x) = {철수, 영희} or {철수, 준이} or {철수, 영희, 준이}

(38)에 쓰인 ‘철수’와 달리 ‘아무’는 아래 (40가)에서처럼 긍정문에는 나타날 수 없고 (40나)의 부정문에만 실현된다.

(39) U = {a, b, c}

아무 = {{a}, {b}, {c}, {a, b}, {a, c}, {b, c}, {a, b, c}}

(40) 가. ***아무도** 왔다.

ALT(x) = {a, b} or {a, c} or {b, c} or {a, b, c}

나. **아무도** 안 왔다.

23) (38나)의 ‘철수도 안 왔다’에서 ‘도’는 맥락에 따라 척도(scale)를 형성할 수 있는데, (38나)의 ALT(x)는 척도 함축은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A: 모임에 누가 왔어? B: 야 말도 마. 그나마 매일 오던 철수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다니까?’와 같은 맥락에서 ‘철수도 안 왔어’는 ALT(x)의 집합 중 {안 옴(철수), 안 옴(영희), 안 옴(준이)}의 경우로만 한정되어 해석된다.

$$\begin{aligned} \text{ALT}(x) &= \text{NOT}\{\{a\} \text{ or } \{b\} \text{ or } \{c\} \text{ or } \{a, b\} \text{ or } \{a, c\} \text{ or } \{b, c\} \text{ or } \{a, b, c\}\} \\ &= \{\text{NOT}a\} \text{ and } \{\text{NOT}b\} \text{ and } \{\text{NOT}c\} \text{ and } \{\text{NOT}a, b\} \text{ and } \{\text{NOT}a, c\} \\ &\quad \text{and } \{\text{NOT}b, c\} \text{ and } \{\text{NOT}a, b, c\} \end{aligned}$$

‘아무’는 (39)에서처럼 a, b, c가 전체 집합(U)을 구성하는 원소라고 할 때 이 중 특정 개체를 나타내지 않고 술어가 나타내는 상황에 속한 개체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 ‘b’, ‘c’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상정 가능하고 ‘{a, b}, {a, c}, {b, c}’처럼 원소가 두 개씩 있는 경우도 상정 가능하며 {a, b, c}의 경우도 상정 가능하다.

이처럼 존재 양화로 분석되는 ‘아무’에 ‘도’가 붙으면 (40가)의 ALT(x)에 상정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39)에 제시한 ‘아무’의 의미에 포함된다. 따라서 ‘도’는 ‘아무’와 어울릴 때 긍정문에서 특별한 정보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 온전한 문장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40나)의 부정문은 ‘아무’가 나타내는 집합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는 결국 ‘온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다’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뜻하게 되며 (40나)와 같이 ‘아무’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들을 부정하는 것으로 표상할 수 있다.

정리하면 ‘아무’는 존재 양화사이며 존재 양화문을 부정하면 ‘부정소’는 전체 부정 해석([not [아무도 오-]])을 위해 ‘아무도’보다 넓은 영향권(wide scope)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며, ‘아무도’는 부정극어(NPI)의 성격을 띠게 된다.

3.2. ‘아무’와 ‘이나’의 의미 합성

1) ‘이나’의 의미론적 의미

‘아무나’는 ‘아무도’와 달리 ‘아무’에 보조사 ‘이나’가 결합하여도 존재 양화(적어도 하나 이상)의 의미 특징을 그대로 보존한다. ‘아무도’와 ‘아무나’의 의미 해석 양상이 다른 것은 ‘도’와 ‘이나’의 의미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나’의 의미는 선행 연구에서 ‘소극적 선택, 자유선택, 차선, 불만, 양보, 배제됨’ 등의 다양한 술어로 정리되어 왔다.²⁴⁾ ‘이나’가 쓰인 예문들은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공통적으로 ‘이나’ 앞에 결합한 명사구 외의 개체들의 존재를 전제함과 동시에 여러 후보들 중 ‘이나’의 선행항이 선택되거나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41) 나는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빵이나** 먹었다.

가. 단언(assertion): (나는) 빵을 먹었다.

나. 전제(presupposition): ‘빵’ 외에 다른 선택항이 존재한다.

(42) 나는 **빵이나** 먹었다.

가. 대체 집합(ALT(x)) = {빵, 피자, 요리}

나. 전제: ‘빵’ 외에 먹을 것들이 존재했다.

$\exists y[y \in \text{ALT}(x) \wedge \text{내가 먹다}(y) \wedge y \neq \text{빵}]$

다. $\exists x[\text{내가 먹다}(x) \wedge x = \text{빵}] \wedge \exists y[y \in \text{ALT}(x) \wedge \text{내가 먹다}(y) \wedge y \neq \text{빵}]$

24) 보조사 ‘이나’의 의미에 대해서는 최현배 1961, 양인석 1973, 홍사만 1983, 이익섭·임흥빈 1983, 이기동 1993, 목정수 2003, 임동훈 201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 ‘이나’의 함축적 의미

‘이나’는 (42)에서 보았듯이 대체 집합 중 하나가 선택되었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도’와 마찬가지로 척도가 형성될 수 있는 맥락에서는 선행항이 화자의 마음에 차지 않는 ‘차선의 선택(rather, at least)’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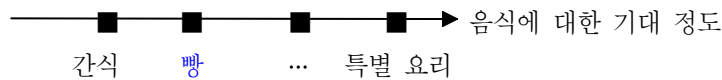
(43) A: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B: 한참 고민하다가 딱히 먹을 게 없어서 빵이나 먹었어.

(44) 나는 빵이나 먹었다.

가. 단언: 어제 나는 빵을 먹었다.

나. 함축: ‘빵’은 화자의 기대 척도상 하위값을 차지함



(43)의 대화에서는 맥락상 ‘이나’ 앞에 결합한 ‘빵’이 다른 후보지들과 함께 척도(scale)를 형성한다. 이때 ‘빵’은 하위의 극단값은 아니더라도 화자의 기대치에서 낮은 정도에 속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이나’는 아래 (45)에서처럼 수량 명사구 뒤에 결합할 때도 있는데, 이때에는 (43), (44)와 달리 ‘이나’의 선행항이 척도상 상위값의 극대치를 표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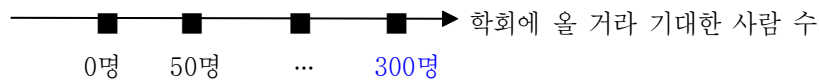
(45) A: 어제 학회에 몇 명 왔어?

B: 날씨가 더웠는데도 학회에 300명이나 왔어요.

(46) 학회에 300명이나 왔다.

가. 단언: 학회에 300명이 왔다.

나. 함축: ‘300명’은 화자의 기대 척도상 상위값을 차지함



(45B)에게 ‘300명’은 (46)에서 보듯이 학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들의 수와 관련된 척도에서도 상위값을 차지한다. 때로 이것은 화자가 기대하고 있던 상위의 극단값을 넘어서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는 기대하지 못한(unexpectedness) 것에 기반한 놀라움의 감정이 수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열 명쯤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백명이나 모였다고?”와 같은 예문에서 ‘이나’가 척도상 선행항이 다른 대체항들보다 매우 높은 값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량 명사구 뒤에 결합하는 ‘이나’는 아래 (47)처럼 부정문에 쓰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는 화자가 행사에 안 올 거라 예상한 수의 척도상 하위값에 해당하여 척도가 역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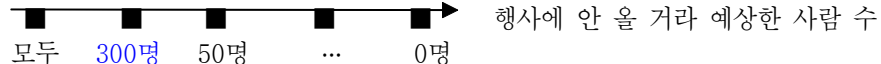
(47) A: 어제 행사에 몇 명 안 왔어?

B: 해외에서 해서 그런지 300명이나 안 왔어요.

(48) 행사에 300명이나 안 왔다.

가. 단언: 행사에 300명이 안 왔다.

나. 함축: ‘300명’은 화자의 기대 척도상 하위값을 차지함



(48)에서 ‘300명’은 ‘행사에 안 온 사람이 300명이다’로 해석되는데, 안 온 사람의 숫자 ‘300명’이 화자가 예상했던 불참석자의 숫자 척도상으로는 하위값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함축된다.

이처럼 ‘이나’ 역시 ‘도’와 마찬가지로 맥락에 따라 선행항과 관련된 대체 집합을 형성하고, 대체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들 사이의 척도를 형성하는데 ‘이나’는 그 척도상 하위값이든 상위값이든 극단 값을 가리킨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화자가 기대한 정도성을 넘어서 놀라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바, 그것은 긍정의 놀라움일 수도 있고 부정의 놀라움일 수도 있다.

3) ‘아무-(NP)-나’의 의미

‘아무도’에서 ‘도’의 척도 함축 의미는 소실되고 첨가의 의미만 더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나’에서도 ‘이나’는 선행항을 선택, 대체 집합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만 더한다.

2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아무’는 존재 양화사로 해석되어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아래 (49)와 같이 개체 원소 하나 하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전체 집합을 나타낼 수도 있다.

(49) 학생 세 명 = {철수, 영희, 미나}

아무 = {{철수}, {영희}, {미나}, {철수, 영희}, {철수, 미나}, {영희, 미나}, {철수, 영희, 미나}}

그런데 ‘아무’가 선택을 뜻하는 ‘이나’와 결합하면 아래 (50)에서 보듯이 전체 집합을 이루는 ‘철수, 영희, 미나’ 중 한 명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0) (지나가는 학생 세 명을 보며) 이따가 아무나 과사무실로 오세요.

w1 → {철수가 옴 & 영희가 안 옴 & 미나가 안 옴} or

w2 → {영희가 옴 & 철수가 안 옴 & 미나가 안 옴} or

w3 → {미나가 옴 & 영희가 안 옴 & 철수가 안 옴}

(50)의 발화를 통해 가능한 경우의 수는 w1~w3인데, 각각의 경우에서 한 명이 선택되면 다른 두 사람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아무나’는 존재 양화적 해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아무’는 ‘아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특정되지 않을 때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원소들 사이의 위계 질서, 즉 척도(scale)가 형성될 여지가 없다.²⁵⁾

그렇다면 왜 ‘아무’가 ‘이나’와 결합하면 (50)처럼 집합 내 원소 중 하나만 지시하는 해석이 우세한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래 예들처럼 ‘아무나’ 뒤에 구체적인 수량 명사구가 명시적으로 결합하면 ‘두 명’ 이상의 복수도 지시할 수 있다. 즉 두 명 이상의 복수 혹은 전체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수량 명사구 표현이나 보편 양화 부사를 덧붙여 사용하는 것이다.

(51) 가. 철수는 장난감 중에 아무 거나 두 개 골랐다.

25) 그러나 ‘아무나’가 사용된 예문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예문들에서처럼 ‘아무나’에 낮은 기댓값을 부여하는 화자의 판단이 해석될 때가 있다. 아래 예문들의 화자는 공통적으로 술어를 만족하는 개체가 특별한 존재임을 가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의로 자유롭게 선택된 개체를 지시하는 ‘아무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댓값을 가지게 된다.

가. 최고위원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전당대회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다. 이런 예측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모두의 말뭉치, 구어 말뭉치)

나. 이따가 오고 싶은 사람 아무나 다 와라.

따라서 ‘두 명’, ‘세 명’, ‘다’와 같은 구체적인 복수 표현 및 보편 양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나’를 단독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아무나’가 가리키는 대상의 양(quantity)이 ‘둘’ 이상으로 크지는 않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는 대화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을 기반으로 한 척도 함축(scalar implicature)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척도를 지닌 집합(ordered set) 안에서 척도상 낮은 값을 발화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높은 값은 부정됨을 뜻한다(Horn 1972 참고). 가령 ‘어제 한 시간 공부했다’라는 문장은 ‘어제 두 시간 이상 공부하지는 않았다’를 함축하는 것과 같다.

정리하면 ‘아무나’는 존재 양화 ‘아무’가 형성하는 집단 내 개체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된 하나를 가리킨다. ‘아무나’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주로 단수 개체를 가리키고 ‘아무나’ 뒤에 수량 명사구 등의 양화 표현이 결합할 때에는 후행하는 수량 표현이 ‘아무나’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아무나’에서는 보조사 ‘이나’가 가리킬 수 있는 화자의 기대치 내 극단값이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아무나’가 지시하는 불특정한 대상들 사이에서의 선택에는 가치 판단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결론

생략

<참고 문헌>

- 구종남(2011), ‘아무’의 지시적 성격과 출현 형태 및 의미적 해석, 한국언어문학 79, 한국언어문학회, 5-32.
구종남(2015), ‘아무’의 형태·통사·의미에 대하여, 언어학 23(3), 대한언어학회, 85-107.
강범모(2014), 양화와 복수의 의미론, 한국문화사.
김미형(1994), 부정칭 대명사와 미지칭 대명사, 동아시아문화연구 24,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37-253.
김영희(1984), 한국어 셈술화 구문의 통사론, 탑출판사.
김영희(1991), 셈술말 ‘각각’의 문법, 동방학지 7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59-274.
남승호(1998), 한국어 부정극어의 유형과 그 허가조건, 언어학 22,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17-244.
류병률(2013), 한국어 조사 ‘-이나’의 의미와 쓰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목정수(2003), 한정조사 {(이)나}의 통사론과 서법 제약, 한글 260, 한글학회, 113-148.
박철우(1990), 한국어 수량표현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성광수(1978), 국어조사의 연구, 형설출판사.
시정곤(1997), 국어의 부정극어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19, 국어국문학회, 49-78.
양인석(1973), Semantics of delimiters, 어학연구 9(1-2), 573-692.
윤영은(2000), ‘아무’와 ‘ANY’, 언어 25(3), 한국언어학회, 455-476.
이금희(2013), 국어 부정칭 표현 ‘아무’계의 통사적 제약과 의미 변화,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회, 57-87.
이기동(1993), A Korean Grammar on Semantic-Pragmatic Principles, 한국출판사.
이기용(1979), 두 가지 부정문의 동의성 여부에 대하여, 국어학 8, 국어학회, 59-94.
이선영(2017), 한국어 부정문과 양화사 중의성에 관한 실험 통사론 접근, 인문학 연구 108, 충남대학교 인문

- 과학연구소, 117~134.
- 이영현(1983), 양화사 아무의 의미분석, 언어 8(1), 한국언어학회, 71-87.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전영철(2013), 한국어 명사구의 의미론: 한정성/특정성, 총칭성, 복수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전영철(2015), 한국어 집합명사와 복수 표지 ‘들’, 어학연구 51(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793-814.
- 정대호·이정민·남승호(2002), ‘-이나’와 ‘-도’의 의미론: 분류사구와 결합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38(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319-337.
- 정상희(2021), 현대 한국어 수 범주 연구: 개체와 사건의 배분성, 집합성, 집단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기용(1998), 한국어의 부정극어 ‘아무’에 대하여, 생성문법연구 8(2), 한국생성문법학회, 313-341.
- 최재웅(1991), 배분관계의 여러 가지 양상: 조지아어의 중첩현상을 중심으로, 언어 16(2), 한국언어학회, 457-478.
- 최재희(2005), 한국어 전칭 양화사 구문의 구조와 의미 해석, 한글 267, 한글학회, 89-119.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허세문(2021), 한국어 자유 선택어의 양화적 특성과 명령문에서의 인허 조건, 언어와 정보 사회 4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7-164.
- 홍사만(1983), 국어특수조사론, 학문사.
- Baek, J. Y. (1998), Negation and object shift in early child Korean, In Sauerland, Uli, and Orin Percus (eds.), *The Interpretive Tract*(MITWPL 25)(pp. 177-204), Cambridge, MA: MIT Press.
- Cho, C. H. (1975), The scope of negation in Korean, In Sohn, Homin(ed.), *The Korean Language: Its Structure and Social Projection*(pp. 63-80),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Choe, J. W. (1987), *Anti-quantifiers and A Theory of Distributivit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Choi, J. Y. (2007), *Free Choice and Negative Polarity: A Compositional Analysis of Korean Polarity Sensitive Items*,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Horn, L. (1972), *On the Semantic Properties of Logical Operators in Englis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Joh, Y. K. (2010), Universal Quantifiers, *Language Research* 46(2), 123-145.
- Kim, J. B. (2000), On the prefixhood and scope of short form negatio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ol. 8, 403-418.
- Kim, M. J., and S. Kaufmann (2006), Domain restriction in freedom of choice: Korean ‘INDET-NA’ items, In *Proceedings of Sinn and Bedeutung* 11, 375-389.
- Landman, F. (1989), Groups I & II,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559-605, 723-744.
- Musolino, J. and Lidz, J. (2006), Why children aren’t universally successful with quantification, *Linguistics* 44, 817-852.
- Schwarzschild, R. (1996), *Pluralitie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ong, S. C. (1982), On interpreting the scope of negation in Korean, *Language Research* 18(1), 197-215.
- Suh, J. H. (1989), Scope interaction in negatio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ol. 3, 527-536.
- Suh, J. H. (1990), *Scope Phenomena and Aspects of Korea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